

해양수산부, 항만시설에 친환경 공공디자인 적용 위한 제도 마련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2021.7.8.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친환경적인 항만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제정하였다. 기존 항만시설이 단조롭고 무미건조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항만 이용자들로부터 쾌적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 조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따라서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은 항만시설을 단순히 아름다운 형태로 만드는 디자인의 개념이 아니라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전성과 편의성 등이 우수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의미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항만구역 내 항만시설 계획 및 설계 시 공공디자인 개념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경관 분야 관련 자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적용 대상과 범위, 관리주체별 역할,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과 기본원칙, 관리 및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시설별 가이드라인으로는 항만시설을 기본시설·기능시설·지원시설·항만친수시설·공공시설물 등 40개의 유형별로 분류하고, 배치·규모·형태·재료·색채 등 세부 요소에 대해 146개 항목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일례로 방파제의 경우 시각적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연결구간을 디자인하고, 직선 형태를 지양하며 자연스러운 선형으로 연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형태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파급효과가 크고 디자인 개선효과가 빠른 시설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만공간 공공디자인 '그랜드 마스터 플랜(Grand Master Plan)' 출처: 해양수산부. (2021). 항만시설 계획·설계부터 친환경 공공디자인 적용한다. 7월 8일 보도자료.